

# “한글은 캘리그래피에 가장 어울리는 언어”

9일 570돌 한글날... '손 멋글씨' 작가 지미정씨



“소리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  
모음 획 방향 따라 글자 표정 바뀌어”

“캘리그래피는 하나뿐인 나만의 글씨  
멋스러우면서 읽기 편한 서체 찾아내야”



지미정씨가 먹의 번짐, 날림 등의 효과를 이용해 쓴 캘리그래피 작품들.



10월 9일은 570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세계가 인정한 인류 최고의 지적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로, 4년전부터 법정공휴일로 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하루라도 더 쉬 수 있는 ‘빨간 날’로만 여겨질 뿐이다.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의 말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손 멋글씨’ 작가 지미정(46·‘갑성향기’ 대표)씨를 만났다. ‘손 멋글씨’는 손으로 쓰는 그림 문자인 ‘캘리그래피’의 우리말 표현이다. 캘리그래피는 선이나 먹의 번짐, 날림, 여백 등의 효과를 이용해 쓰는 전문적인 손글씨 기술로, ‘똑똑한 언어’ 한글이 캘리그래피를 만나 ‘아름다운 언어’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만든 언어입니다. 알파벳이나 숫자처럼 일일이 나열하는 언어가 아닌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지요. 이런 한글의 특성을 잘 파악해 아름답게 표현한 게 바로 캘리그래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글의 자음은 글씨 모양을, 모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준다”는 지씨는 모음의 획 방향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웃어요’와 ‘울어요’의 글자 표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캘리그래피를 쓰면서 알게 된 건 소리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이라는 점이에요. ‘파랗다’가 아닌 ‘푸르스름하다’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 뿐입니다. 표현문자인 한글의 장점이 캘리그래피를 만나면서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한글날을 기념해 뜻이 맞는 작가들과 함께 전주에서 ‘소리 눈으로 보다’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한글을 예쁘게만 쓰는 데서 벗어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니만큼 의미있는 일을 기획해보자는 뜻에서 진행된 전시였다. 캘리그래피라는 외국어 표현 대신 ‘손 멋글씨’라는 우리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도 싶어했다.

한글 캘리그래피는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글씨이기 때문에 정해진 서체가 있는 것은 아니

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숙지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 무작정 휘날린다고 캘리그래피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자간과 행간을 붙여쓰는 노하우가 있거나 붓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배우면서 자신만의 글씨체를 찾아가면 된다.

캘리그래피는 여러 도구로 모두 표현할 수가 있지만 대개 서예붓이나 붓펜을 이용한다. 지씨는 초급자의 경우 붓 다루는 걸 먼저 배우도록 지도한다. 펜 글씨에만 익숙해져 있다보니 붓을 다루기 힘들고, 그럴수록 자신의 뜻대로 글씨가 써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붓에 익숙해진 다음 중급반이 되면 행간과 배열을 조절해서 ‘잘 써 보이게 하는’ 기술을 배운다. 공간과 여백의 위치를 조절해 멋을 내는 방법도 익힐 수 있다.

“예쁘게 썼어도 읽지 못하면 그건 잘 쓴 글씨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멋스러우면서 읽기 편한 서체를 찾아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두 번째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패션이나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경우예요. 외국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글을 좋아하는데, 글씨 모양이 예쁘다는 이유로 ‘변소’라고 쓰여진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글씨에 담긴 의미보다 글씨의 모양만을 생각하는 일래도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씨는 캘리그래피를 배우면서 한글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지씨 뿐만 아니라 캘리그래피 작가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다.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이런 스마트 시대가 올 줄 알았을까 싶은 거지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최적화 된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모음과 자음의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영어의 알파벳이나 일본어의 히라가나나 하나씩 나열해야 하고 중국어나 일본어는 사이사이 한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컴퓨터로 일을 하는 작가들도 이런 점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한글의 위대함을 깨닫는다고 해요.”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은행 한국화 공모전 개최

총상금 1억원 ‘광주 화루’... 11월 14~30일 접수

JB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연다.

광주은행이 5일 ‘제1회 광주 화루(畫壺)’ 공모자를 11월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주 화루’는 공모전과 작가상으로 구성되며 총상금은 1억원 규모이다.

공모는 3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11월14일부터 30일까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1차 서류접수를 진행해 2차 본선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2차는 출품작 개별 심사로 이뤄지며 3차 최종심사는 작업실 방문 심사다.

대상 1명에게는 300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당선자들에게는 문화전당 전시회 개최, 도록 제작 등이 지원된다. 또 2년 이내 전시회 개최 비용 또는 국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비용 중 선택해 10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3차 최종심사 대상자에게도 전시 및 도록 수록 등을 제공한다.

내년 1월말 당선작을 발표하며 전시회는 3월 열릴 예정이다. 작가상은 별도로 진행한다.

공모전 명칭 ‘화루’는 추사 김정희 제자들이 솜씨를 겨루던 모임 ‘화루(繪壺)’에서 따왔으며 남도에서는 소치 허련 등이 참여했다.

김한 은행장은 “점점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화 공모전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39-50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위성만 개인전 ‘남도길 따라 산의 노래’

10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섬세한 붓질로 세련된 수묵화를 작업하고 있는 일초 위성만 작가가 10일까지 아트타운 갤러리에서 개인전 ‘남도길 따라 산의 노래’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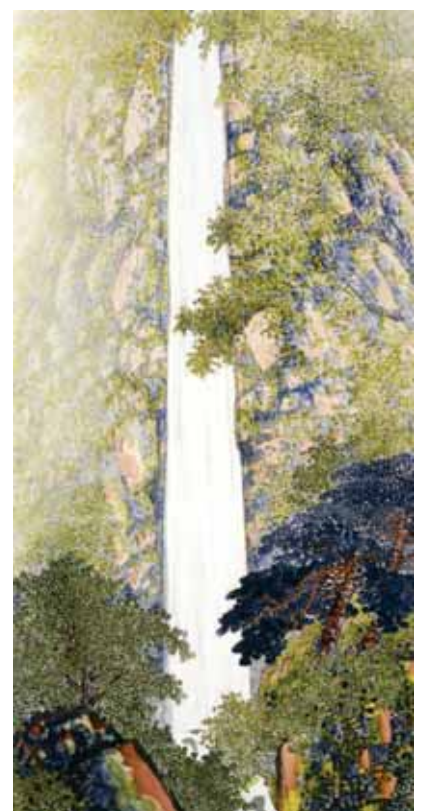
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 사계 산천을 그린 수묵 채색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산이 주로 등장한다. 지역 월출산부터 멀게는 금강산, 설악산 등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직접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산을 그렸다면 최근작에서는 이상의 세계로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작품 ‘주작산 길’은 진달래가 만개한 산봉우리를 소재로 삼았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오솔길 너머로 정상이 보이고 멀리 또다른 산을 희미하게 그렸다. 근경과 원경을 뚜렷하게 구분하며 보이지 않는 중간 세계를 강조한다. ‘월출산 연무’는 구름에 뒤덮인 기암괴석을 통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또 ‘황토길’, ‘초봄의 향기’, ‘유채밭’, ‘회상’, ‘향’ 등 다양한 남도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위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터키 이스탄불, 호주 퀸즈랜드에서 초대전 여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대·광주



‘폭포’

여대·광주예술대학 겸임교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 용·박동민·박중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문태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11. 11(금)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개막일시: 2016. 10. 11 pm 5:00  
☎ 062)222-0072 (예술거리 서문입구)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10월호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 나만의 여행 로망 '테마 여행'이 뜬다

우주, 건축, 예술 찾아 떠나는 그들  
'남아공 대자연 속에서' 특별한 여행  
이홍재 주필의 인도여행기

기획

파키스탄 편잡 히말라야  
낭가파르브 원정기

-산중의 왕 낭가파르브 가는 길-  
-박종석 화백의 산행일기

한글날 기획  
손 멋글씨 작가와 나눈  
아름다운 한글 이야기

예왕이 만난 이 사람  
작품 기증에 조각공원 만든 조각가 정문태  
한시선집 '고시원' 완역 양희석·김희경  
리더십과 실력 보여준 KIA타이거즈 이범호

남도美味樂  
여수

‘어수 빙바다’ 남당과  
미항의 열정

예왕 초대석

아프리카에 생명의  
망고나무 심는 해남 출신  
패션디자이너  
이광희

남도의 장인들

소박하고 견고한  
나주반 도살린 소반장 김춘식

다도계를 가다-유럽 여행에 심어가기  
생태-민속 체험의 섬  
네덜란드 아멜란트

전시회

행촌미술관  
광주비엔날레기념전  
'해남, 천년의  
시간이 머무는 곳'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편견에 눈을 흘리는  
'웃음의 광대'  
코미디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

문학 화재

문리 장흥의 강수성 담야  
발간한 '장흥문학길'

지역축제 가을이라 더 맛있고  
풍성한 남도 축제

스타 데이트

'이벤트도 생계형, 그러나 사이드 매력 캐릭터즈'  
SBS '질투의 화신'으로 돌아온 '공블리' 공효진